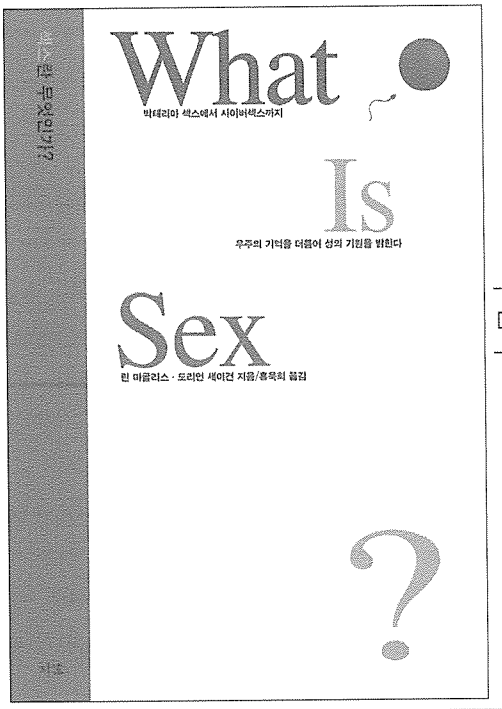

'번식과 쾌락' 그 性은 진화한다

□ 섹스란 무엇인가? /린 마굴리스·도리언 세이건 지음, 홍욱희 옮김, 지호 발행

모든 생물이 번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적활동을 통해 삶의 희열을 만끽할 수 있는 성(性). 그러나 우리는 빈번히 그 성(sexuality)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번식과 쾌락에 따른 성의 생물학적 본질을 풀이하면서 성은 탄생은 물론 죽음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성은 진화하며 앞으로 개인의 성적쾌락은 번식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성의 탄생과 진화

지각을 가진 생물이라면 다 이성(sex)과 먹이의 유혹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고 먹이에 집착함으로 해서 생물은 그 자신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번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생물이 다 번식을 위해서 성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성적 활동을 하는 모든 생물들에게 있어서 성은 에너지 전환작용의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으로 오직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삶의 희열을 만끽할 수 있고, 에너지에 침잠된 이 우주 속에서 그 자신을 유지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복잡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우리는 빈번히 성(性)이란 단어에 대해서 곤혹스러워 하곤 하는데 그것은 성을 통해서 명백히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한데 결합함으로 해서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에게 완전히 노출시키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또 우리가 빈번히 성(sexuality)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자신이 유성생식을 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 곧바로 이 세상에는 단지 성교를 위한, 성기에 기초한 성(genital-based sex)만이 존재한다거나 또는 성이란 반드시 번식을 전제로 해야한다거나 하는 담론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상 생물계의 5계 중에서 4계에 속하는 대부분의 생물들은 번식하는 데에 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복제물을 만드는 수단

성은 새로운 유전자의 획득을 수반한다. 카드 게임에서 새 카드를 얻으면 종종 더 좋은 패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생물학에서도 새로운 유전자들을 한데 섞게되면 보다 나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성이란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변이(variation)를 유발한다. 그렇지만 방사선에의 노출이나 바이러스 및 다른 공생자들에의 감염, 또는 주위 화학물질들에의 노출 등과 같이 여러 다양한 과정들도 역시 DNA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변이성 DNA를 첨가시킬 수 있다. 생명을 범우주적 차원에서 살펴본다면 진정 놀라운 점은 생물체가 변이를 만든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과 거의 완벽에 가깝게 닮은 복제물을 만든다는 점일 것이다. 성적으로 번식을 하든 그렇지 않든 생물들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거의 아무런 변화없이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후손에게 넘겨준다.

성의 진화는 마치 악마와 거래를 한 것과 같다. 접합적 성, 즉 감수분열과 그에 뒤따르는 수정은 생물체로 하여금 계절적 곤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또 성은 동물들이 수정란으로부

터 발생하여 복잡하고 정교한 다세포성의 몸체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자아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만족 — 즉 우리로 하여금 서로 짝을 짓게해서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 새로운 존재로 재탄생하게 하는 성(sexuality) — 의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성은 세포 수준에서는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한 관련성은 필경 7억년 이상 지속되었을 것이다. 부모의 몸체는 죽어야만 했다. 동물에게 있어서의 성의 진화는 그 몸이 나이를 먹어서 결국은 죽게되는 운명을 수반하였다. 신호에 의한 죽음, 예정된 죽음, 또는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된 죽음이라고도 불리우는 죽음의 의미는 우리가 단세포 생물이던 시절부터 접합적 성과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 종종 예술 작품들에서 보여지는 성과 죽음의 낭만적인 관련성은 실제 진화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죽음과 연관성있는 性

우리의 생은 성에 의해서 조율된다. 우리는 무(無)에서 와서 무로 사라진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존재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성에 의해서 매개된다. 우리는 성 행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을 시작하지만 그것은 또한 되돌이킬 수 없는 노화의 시작을 유발하기도 한다. 우리 부모는 적어도 성 행위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 자신은 그런 성 행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물질적 조직 형태로서의 우리는 이미 30억년 이상의 나이를 먹었지만 의식적 주체로서의 우리는 기껏해야 백년을 넘기지 못하는 존재일 따름이다.

성을 '타락(the Fall)'에 연결시키곤 하는 기독교적 사상은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관점과 어느 정도 공통되는 면이 있다. 우리 원생생물 선조들에게서 감수분열과 수정이라는 성 사이클이 진화되었을 때 죽음을 모르게된 불멸의 박테리아 집단들은 다른 개체와의 통정을 허락함으로 해서 그 자신의 순결을 잃었다. 그 이후로 종교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모두 성은 죽음과 연관짓게 되었다. 다세포성 몸체의 진화는 성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케 함으로써 각각의 세포들에서 점진적으로 에너지를 잃어가는 과정에 종지부를 찍게 한다. 그것은 원시 생물들의 입술에 '성과 연계된 죽음'이라는 순환 사이클의 키스를 선사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다세포 생물들의 단속성(discontinuity)이다. '죽음의 키스(the kiss of death)'는 — 성과 생식 사이의 연계성과 유성적 존재로서의 우리는 그것을 결코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의 내재적 시사를 수반해서 — 유전자를 지니는 불멸의 성 세포들이 거쳐하는 임시변통적인 일회용 운반체에 불과한 우리 자신의 진화에 대한 예리한 은유라 할 수 있다.

번식에서 벗어나는 性의 미래

현재 자식낳기의 필수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는 성교가 미래의 인류 집단에 있어서는 아마도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의 의학 기술은 오르가즘이나 다른 성적인 쾌락의 경험 없이도 난자가 수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심지어 요즈음의 우리들은 오르가즘이 성기의 자극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잘 알고 있다.

성 행위의 쾌락은 번식을 지향하는 행동의 수행을 약속한다. 그렇지만 인구 집단의 규모가 정점에 이르면서 번식을 지향하는 성은 이제 그 자체가 과도해졌는데, 이제는 번식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번식 제일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괴이하기 짝이 없는 단계로까지 진행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맛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한 생물종에 있어서는 아주 정상적인 성도 처음에는 괴이한 행동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으며, (도덕심을 배제한 관점에서 말하자면) 과거 조상들에게 있어서 성적 창의성으로 처음 나타났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정자들의 경쟁이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하건데 영장류 원숭이들에 유사하여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생활이 난잡하고 또 성 행위의 횟수도 많았을 것이다.

진화는 좀처럼 정체되지 못하는 법이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 번식 특권을 양보하고 집단 통합으로의 길을 걸을 때 개인의 성적 쾌락은 새로운 사회적 조직체의 유지와 확장을 위해서 재정립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으리라. 개인의 성적 쾌락이 성과 번식 사이의 태고적 연계가 단절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과도함을 낳게 되는 바, 거기에는 진화가 잠재적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SJ

洪 旭 憙 〈세민환경연구소 소장〉